

인조짚에 투영시킨 자연과 인간의 '공존'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설치작가 양혜규씨(44)가 삼성미술관 리움(서울한남동)에서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12일~5월10일)란 제목으로 개인전을 연다.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1994년 독일로 떠난 그는 2006년 자신의 외가였던 인천의 한 폐가에서 직접 조직한 전시 '인천 사동 30번지'로 국내 미술계에 처음 존재를 알렸다. 그 후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선정돼 주목받았고, 이듬해 아트선재센터에서 두번째(기관으로는 첫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5년 만에 '세미 회고전' 형식의 전시를 갖기까지 그는 국제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미국 뉴뮤지엄(2010),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미술관(2011), 영국 테이트모던 미술관(2012),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근현대미술관(2013) 등 매년 3~5차례 미국과 유럽의 주요 미술관, 갤러리를 순회했다. 지난해에는 아트팩트넷이 선정한 '세계 300위 이내 작가'에 한국인으로는 백남준, 김수자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9일 리움에서 열린 전시 프리뷰에서 작

가는 먼저 전시 제목을 언급했다. "제목이 너무 큰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번째 개인전을 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의심했다. 만용이라면 만용, 용기라면 용기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작해야 하고, 이 전시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회복이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조지 오웰의 수필 '코끼리를 쏘다'와 로맹 가리의 소설 <하늘의 뿌리>에 등장하는 코끼리가 합쳐진 것으로, 전자의 코끼리가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순수한 자연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인간의 본성과 신념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강력한 자연의 이미지다.

양씨의 출발이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임을 상기한다면, 이것이 인간과 자연의 문제로 발전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전시를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실 2개층에 펼쳐진 작품은 35점이다.

이 가운데 '창고 피스'(2004)와 '서울 근성'(2010), '성채'(2011)는 이전 전시를 본 관객이라면 익숙한 작품들이다. '창고 피스'는 23점에 이르는 초기 작품들이 미술

유럽서 활동하는 설치작가 양혜규 코끼리를 쏘다...전



인조짚을 이용해 동서양 건축물과 토템 형상을 만든 작품 '중간유형'(왼쪽)과 초기작 '창고 피스'(가운데)가 나란히 서 있다. 아래는 작가 양혜규씨. 이준현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품 운송업체가 포장한 상태 그대로 운반용 나무 팔레트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작품이다. 옷걸이용 행거에 전선·전구와 함께 휴대폰 장식·가재도구·육식용품 등 일상의 소재들을 매단 '서울 근성', 막힌 동시에 뚫려 있는 블라인드와 조명, 향분사기를 이용한 설치작 '성채'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여기서 좀 더 나간 작품이 '신용양호자들'(2010~2015)과 '상자에 가둔 발레'(2013~2015)다. '신용양호자들'은 이종봉투의 속지로 쓰는 보안 무늬 종이를 이용한 콜라주 작품으로 은폐와 노출이 상호 모순을 일으키는 정보사회의 단면을 꼬집는다. '상자에 가둔 발레'는 6점의 소리나는 무용수 조각으로 '무용=시각'이란 상식에 균열을 가한다.

그러던 중 작가의 눈에 들어온 소재가 짚이다. "지난해 2월 일본 가나자와의 어느 공원에서 짚풀로 공들여 감싼 큰 나무들이 조형물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기계화, 산업화된 오늘날에도 원시농경사회의 재료인 지푸라기와 이를 엮는 사람의 손기술이 쓰이는 겨울나기 풍습에서 문화인류학적 맥락을 발견했다."

인조짚을 사용한 신작 '중간유형'은 고대 마야의 피라미드, 인도네시아의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러시아의 현대 이슬람 사원 라라툴판 등 3개의 건축물과 함께, 6개의 토템 형상으로 구성돼 있다. '코끼리'와 '토템'을 연결시켜 동서고금의 역사와 미감, 보편성과 토착성을 뒤섞은 글로벌 작가의 새로운 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윤정 선임기자 yjhan@kyunghyang.com